

# 만화와 웹툰



김양평의  
일본 이야기

아직도 코로나19 환자가 하루 평균 3만 6000 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지만, 코로나 19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된 것 같다. 주변에서도 코로나 19 확진보다 독감에 걸리는 것이 더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코로나19의 위력은 약해졌고 지하철과 버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다. 사람들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지난 수년간 막혀있던 하늘길도 열리고 TV 방송들은 앞다투어 해외여행 관련 방송들을 내보내고 있다. 최근 해외여행 방송을 보면 한국말을 할 줄 아는 현지인이 자주 등장한다. 물론 방송국의 의도된 연출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근처에서 섭외도 가능했을 것이다. 필자 주변에는 학교나 학원에서 정식으로 일본어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일본어 회화를 능숙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몇 명 있다. 그들의 공통점은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에 빠져서 일본어를 독학했다는 것이다.

필자도 유학을 준비하면서 일본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해 일본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일본 드라마는 우리와는 다른 분위기로 색다른 재미가 있었다. 당시 그 차이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와 정서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차이로 이해했다. 하지만 일본에서 조금 생활하다 보니 그것보다 더 큰 차이가 원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드라마는 우리의 일상이 소재가 되었고 작가들이 창작 활동을 통해 드라마 대본을 작성했지만,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는 원작 대부분이 만화라는 것이었다. 일본 편지점 가판대에는 다양한 잡지와 함께 항상 만화책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주간, 계간, 월간으로 발간되는 수많은 만화책이 있고 그중에서 인기를 끄는 이야기가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로 제작되는 것이었다. 이미 만화가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한차례 검증이 되어 제작자로서는 실패의 위험이 적었을 것이고 시청자는 소문으로 들었거나 만화를 통해 익숙한 내용을 영상으로 접하게 되니 시청률도 높게 나타날 수 있었다. 일본에서 종이로 된 만화책이 문화의 하나로 자리를 잡는 동안 우리나라에서 만화책은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보통신(IC

T) 산업의 발달은 이러한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PC와 인터넷의 빠른 보급으로 인해 플랫폼 사업이 발달하였고 웹툰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인기 웹툰 작가의 작품이 드라마와 영화로 제작되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 되었다. 예전 일본의 만화책이 드라마나 영화의 원작이 되었던 것과 같이 한국에서는 웹툰이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일본의 만화가 인정받는 창작물로서 드라마나 영화의 원작이 되고 새로운 창작의 모티브가 되는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만화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만화산업이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웹툰의 부상을 보면 정보통신과 플랫폼 산업의 발전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화와 웹툰은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만화가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웹툰으로 재평가되는 것은 마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다. 어쩐지 만화는 일본, 웹툰은 한국의 진화하는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닐 것이다.

/ 김양평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물가 뿔박질에 임금삭감... 상저하고 석 달 남아



김수섭  
김연세  
(정책사회부)

국내 휘발유 값이 두 달 넘게 오름세다. 지난 7월6일 기준 차량 휘발유값으로 리터(1)당 평균 1568원에 주유했으나 9월11일 기준 1757원을 내야 한다. 200원 가까이 올랐으니 가득(50l 내외) 넣는다고 치면 7월 초보다 1만 원 더 꺼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결정한 유류세 인하 연장이 이달 초 시행에 들어갔지만 역부족이다. 주요산유국협약체(OPEC+)의 감산 연장 탓에 두바이유 등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 8월 농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5.4% 올

랐다. 사과(30.5%)와 복숭아(23.8), 고구마(22.0%) 등이 치솟았다. 7월 하순 전국 곳곳을 강타한 집중호우의 여파다. 전기·가스·수도요금 상승률은 20%대를 기록했고, 택시(19.1%)와 시내버스(8.1%) 요금도 크게 올랐다. 외식 물가는 5.3%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 총가구 빛(가계대출잔액)이 올해 6월 기준 1748조 원이다. 3월에 비해 10조 원 이상 불어났다. 물가는 뛰는데 빛은 늘었다. 게다가 실질임금마저 쪼그라들었다. 올해 4~6월 직장인들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이 334만 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1~3월(387만 원)과 비교해 50만 원 이상 줄었다. 또 2년 전인 2021년 4~6월 평균(339만 원)보다도 적은 액수다. 우리나라 가구의 구매력이 점점 쇠하고 있는 것이다.

물가 역제를 위해선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그럴 경우 국가 성장률은 건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마저 올해 GDP성장률이 1.4%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0%대 성장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진퇴유곡의 상황이다. 이달까지 지속되고 있는 수출 부진은 '상저하고' (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 전망)는 커녕 내년 경제에도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유커가 돌아왔으나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수출이 어떻게 회복할 지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국민은 어렵고, 국가 경제엔 빛이 들질 않는다. 기재부 등 경제팀은 하반기에 잘 될 것이라고 반복해 말한다. 곧 4분기에 접어든다. 비책이 전혀 없는건가. /kys@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9월 12일 (음 7월 28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과한 것보다 약간 모자란 것이 낫다. 48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으니 부단한 노력이 필요. 60년생 외로움보다 참기 힘든 건 그림움. 72년생 최소한 내가 모르는 것은 인정하자. 84년생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가득.



37년생 가는 사람도 잡아야 할 때. 49년생 두드리면 열릴 문이니 힘껏 두드려라. 61년생 거품은 사라지고 아쉬움만 남는다. 73년생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야 토지가 비옥해지는 법. 85년생 자신의 백년생기약(百年佳約)이 이뤄진다.



38년생 상대는 호기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로 착각. 50년생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다. 62년생 이쪽편도 저쪽편도 편을 가르치지 말도록. 74년생 이럴뿐 아니라 저런도 저런도. 86년생 음주는 절대로 하지 말라.



39년생 바람이 불어오니 내 마음도 상해. 51년생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나니 난감하다. 63년생 양피외의 거래는 잘 성사된다. 75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돈을 빼 쓴다. 87년생 감미이란 간과 쓸개를 합쳐서 부르는 말.



40년생 알아도 모르는 척 실수를 덮어 줄 것. 52년생 가도 가도 쉬운 길이면 안 나오는데. 64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잘 해결. 76년생 깊은 물에 고기가 모이는 법이다. 88년생 주변의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41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크게 보고 행동. 53년생 하나를 투자했는데 열을 얻는 운이 좋은 날. 65년생 신세 쪼든 사람이 빛을 갈려온다. 77년생 십년생 목은 체증이 오후에 해소. 89년생 힘내라는 말 대신 실질적인 힘을 줘라.



42년생 이기적인 마음으로 실수를 하게 된다. 54년생 산은 오를수록 높고 물은 건널수록 깊다. 66년생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여 다르다. 78년생 심신이 피곤하나 재물은 들어온다. 90년생 미래를 생각해서 적금을 들어 쌓아가라.



43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55년생 사든 남의 말 하지말라. 67년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79년생 반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91년생 득어망정(得漁忘筌)물고기 잡고나면 통발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44년생 사방에서 운이 들어오니 오늘은 거칠 것이 없다. 56년생 물 건너서 기쁜 소식이 들려온다. 68년생 시간약속을 중시하라. 80년생 명에는 높이지지만 실속은 없는 속빈 강정. 92년생 변화의 운이 있으나 현명한 판단이 중요.



45년생 천하를 다 얻은 듯하다. 57년생 명성이 깔렸으니 역량을 발휘해서 미뤄둔 일을 마무리. 69년생 개천에서 용이 난 형국이다. 81년생 개구리 울쟁이적 생각 못하는 게 세상사일수. 93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시간 낭비.



46년생 동료와의 협력이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58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는다. 70년생 최선의 해결책은 양보이다. 82년생 행운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니 항상 준비해야. 94년생 구름이 하늘을 가리니 일을 늦추는 것이 상책.



47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을 하게 된다. 59년생 내가 믿음을 가져야 남도 설득시킬 수 있다. 71년생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충실 하자. 83년생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95년생 망각은 신이 주신 선물이라는데.



# 김상회의四季

부자들의 자산관리법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지만 소부자도 마한가지이지 싶다. 부자들은 자산관리에 가장 관심이 많을 것이다. 자산이 축나지 않게 지키고 신경 쓰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정보를 수집한다. 사주 상담을 하면서 자산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배울 점이 많다는 걸 느낀다. 자산가들과 투자 이야기를 나누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가진 만큼 노력을 한다는 걸 생생하게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남의 탓으로 자기는 부자 되기는 틀렸다고 한다. 그렇지만 정작 부자들에게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부자들의 자산 관리 방법은 저마다 다른데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이다. 채테크를 해 본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시장은 항상 변화한다. 날마다 달마다 미세하게라도 변한다. 부자들은 그런 변화를 쫓는다. 수시로 자료를 조사하고 금리에 따른 영향을 세세히 살핀다. 두 번째는 시장변동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바꾼다. 코로나가 번창하는 동안 시장은 급락과 급등을 빠르게 오갔다. 부자들은 시장을 주시하면서 주식 채권 부동산으로 투자 전략을 바꾸며 수익을 올렸다. 세 번째는 투자 비율을 항상 검토한다.

수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쪽에 투자금액 비중을 높이고 수익이 의심스러운 곳에는 투자를 줄인다. 투자 분야는 다양하다. 주식 채권 부동산은 물론이고 금이나 곡물 그리고 달러 등을 넘나들며 비율을 조정한다. 부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방법이 왕도는 없는 것 같다. 부자들은 남의 말을 쉽게 믿지 않고 투자법 만드는데 그러기 위해서 공부 또 공부에 매진한다. 경제적으로 넉넉하니 계으를 것 같지만 부자라고 할심히 땀 흘린다. 대중 편하게 살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없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하는 힘**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 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4		8				
	9			5		1	8	
1		3	4				2	
		2			7			1
	3						7	
5			1			2		
	6				5	7		9
	1	9		6			5	
			7			4		

1	8							9
3				9	1			2
		4		8	2			
		2	5			4	5	1
		7	1	3			7	3
				8	2		6	
	4			9	3			5
5								9
								3

## 정답

8	9	4	1	6	2	5	3	7
2	5	8	7	9	8	6	1	2
6	1	2	5	2	8	8	9	7
5	7	2	6	8	1	9	2	9
9	2	8	2	4	9	5	1	6
1	6	9	2	8	9	2	7	8
9	2	6	9	2	7	8	8	1
7	8	1	8	9	2	2	6	9
2	8	9	8	1	6	7	9	2

5	6	2	2	7	1	8	9	9
9	8	1	9	8	6	2	7	2
7	2	9	5	2	8	8	1	6
2	7	6	8	9	8	1	2	9
8	8	2	6	1	9	9	2	7
9	1	9	7	2	2	6	8	8
1	9	8	2	8	9	7	6	2
2	2	8	1	6	7	9	9	8
6	9	7	8	9	2	2	8	1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26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37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